



대구광역시 28

since 1996
7월 11일 창간

제 5342호
2024년 1월 2일
화요일(火)



세계최고 신비의 섬
울릉나들이는

호명관광여행사와 함께...

여행안내 054-791-1717



2024



이별 후 재회 靑龍이 준 선물 가슴에 품자



본지대표 김성용

관의 왼쪽에 그렸다. 사진은 네 방향을 맡은 신(神)이다. 동쪽은 청룡, 서쪽은 백호, 남쪽은 주작, 북쪽은 현무로 상징된다. 동쪽을 지키는 신 청룡의 날갯짓은 너무나 웅장하다. 마치 세상을 집어삼키려는 희망의 승천이다.

‘청룡(靑龍)’이 2024 갑진년(甲辰年) 새해 여의주를 물었다. 천둥을 물고 붉은 태양을 집어삼킨 청룡이다.

청룡은 사신(四神)의 하나다. 동쪽 방위를 지키는 신령을 상징하는 짐승이다. 용 모양으로 무덤 속과

청룡을 타고 비상해보자.

2023년은 너무나 참담했다. 경기침체의 늪에 빠져 헤어나질 못했다. 사업을 포기하고 가족을 등졌다.

어떤이는 사랑하는 여인과 이별의 아픔을 맞이했다. 생사를 도려내는 이별은 아픈 폐를 깊숙이 찌른다.

그 시간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너무 보고싶어 밤새 몸살을 앓았다.

헤어진 후 죽을 듯한 고통에 잠겨 연락 소망하며 버티고 또 버티었다.

숨이 막히는 이별의 간절함에 등장 나타나 아픔을 달래달라고 억지를 부려본다.

그 슬픔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 거리를 방향했다.

너무 보고픔에 목 놓아 울어 젖힌다. 곧 그가 다시 돌아올 것만 같아 재회를 꿈꾼다.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만 안다. 이별이 얼마나 힘든 건지!

이별은 또하나의 희망이다. 그게 바로 이별의

슬픔이 재회의 기쁨이다.

그래서 웃는다.

격량의 재미년 암울의 시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계미년과 이별했지만 통곡을 뒤로하고 과거의 이름을 버리고 새 이름으로 나타난 갑진년을 만났다.

너무나 기쁜 재회에 가슴이 용솨음 쳤다. 두번다시 그러지 말라고 두번다시 사랑하는 사람 울리지 말라고 청룡이 주는 재회의 선물이다.

그 선물 마음에 품고 가슴으로 안아보자.

550만 대구·경북인들은 너도나도 설렘에 들떠 가슴에 품은 또하나의 새해를 열었다.

덩두렷이 떠오르는 찬란한 해를 바라보며 모두들 환호작약했다. 분명 새해는 서광이고 새 아침은 희망의 시작이다.

새로운 출발이다.

다시한번 365일을 향해 긴 여정의 마라톤을 시작한다.

우리는 새 아침의 희망과 의욕을 가슴 속 깊이 아로새기려 한다. 목은 상처와 명에는 훌훌 떨쳐버리자.

절망은 희망으로 바꾸고, 고통은 기쁨으로, 울음은 웃음으로, 고뇌와 변민은 저 흐르는 강물에 던져버리자. 다가올 수많은 흔들림과 절망이 온다해도 곳곳에 희망만 바라보고 걸어 가자.

신발끈을 마작 조여매고 힘차게 뛰어보자. 가슴에 응어리진 모든 것은 털고 전력질주 하자. 희망을 향해 말이다.

새로운 각오와 포부로 큰 가슴을 하나 가득 채우자.

도약의 해를 넘어 대운상승(大運上昇)의 해로 삼자. 어둠을 뚫고 창공으로 날아가는 비행기처럼 말이다.

갑진년 새해에는 값지게 살아가자. 굵어진 갈등의 응어리를 씻고 여의주 입에 물고 하늘로 비상하는 龍처럼 말이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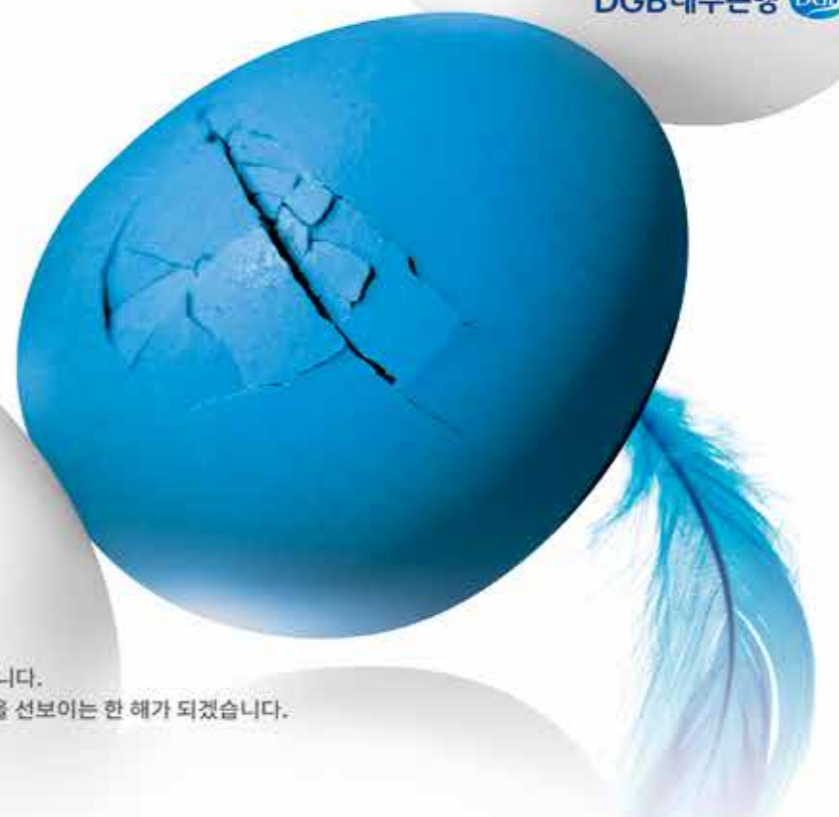
YEAR OF CHANGE

DGB대구은행

변화는 있어도 변함은 없기를

지난 56년 동안 DGB대구은행은 지역민과 동고동락하며 따뜻한 금융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2024년, DGB대구은행은 금융의 틀을 깨고 그 어느 해보다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금융을 선보이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DGB대구은행 DGB



양수발전 사업자선정...영양 2조원 봉화 1조원 따냈다

경북 전국 양수발전소 30% 차지 양수발전소 최대 집적지로 부각 영양군, 특별지원금 240억 포함 60년간 총 936억 지원 받는 경사 생산·소득·부가가치 유발 효과 2조 이상 8천여명 고용유발 효과 봉화군, 특별지원금 120억 포함 60년간 469억원 지원 직·간접적 생산·소득 유발효과 1조이상 발생 4000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 예상

영양·봉화가 10부 능선에 깃발을 꽂았다. 2조원이 투입되는 양수발전소를 끝내 유치했다. 전장에 나간 투사들이 '양수발전소대첩'에서 승리했다는 낭보다.

영양군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생존유치를 했다. '양수발전소대첩'은 마치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고대 로마 원형경기장의 검투처럼, 피흘린 값진 승리다.

지금은 영양군은 기쁨이 축제에 들떠있다. 총 사령관 오도영 영양군수를 중심으로 영양군민이 뿔뿔뿔쳐 싸워 얻어낸 너무 값진 전승물 이제 영양은 내일의 희망에 승선하게 됐다.

영양·봉화군이 지난달 2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신규 양수발전 사업자 공모에 영양군과 봉화군 양수발전소가 모두 선정됐다.

정부는 제10차 및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양수발전 사업자를 모두 선정했다.

이달 중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영양군은 한국수력원자력(주), 봉화군은 한국중부발전(주)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영양군은 2038년까지 일일면 용화리 일대에 전국 최대 용량인 1000MW로 2조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봉화군은 소천면 두음리와 남회룡리 일대에 500MW 용량으로 1조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돼 건설된다.

양수발전소는 상하부 댐으로 구성된 특정 시간대에 남는 전력으로 하부 댐의 물을 끌어올려 상부 댐에 저장한 후 전력공급이 부족하거나 정전 등 비상상황에 전력을 공급하는 친환경 에너지 저장고로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하는 필수 공존 설비다.

도는 "이번 성과는 지난해 연초부터 영양, 봉화군 그리고 각 발전사 간 긴밀한 협력에 이어 관계기관 건의 및 유치 홍보, 수물지역 주민 모두 찬성 등으로 총력 대응한 결과"라고 밝혔다.

도는 양수발전소 2곳을 모두 유치하고자 신규 원자력발전소 4기(5600MW) 및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의 최적 입지를 정부에 건의하고 서로 인접한 영양과 봉화 양수발전소의 송전선로 공동이용 합의를 주도해 송전건설비 1565억원 정도가 절감되도록 했다.

선정된 양수발전소는 총 1500MW로 전국 최대



봉화군 양수발전소 위치도



영양군 양수발전소 위치도



용량이다.

이미 가동하고 있는 예천군(800MW)과 청송군(600MW)을 합치면 총 2900MW로 원자력발전소 2기에 해당하는 용량을 갖추게 된다.

경북은 전국 양수발전소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양수발전소 최대 집적지로 부각됐다.

도는 앞으로 원전에 이어 대한민국의 에너지를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펼쳐나간다.

양수발전으로 하루 저장 때 영양군 전체가구가 133일, 봉화군 전체가구가 37일, 경북도 전체가구가 2일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

원자력에 이어 전국 최대 양수발전소가 있는 경북도는 앞으로 전국에서 정전 위험이 없는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가장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전력공급 시스템이 갖춰져 기업 유치에도 큰 장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수발전소 유치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제도가 적용되고 발전사업자 지원이 이뤄진다.

영양군은 특별지원금 240억원을 포함해 60년

간 총 936억원이 지원된다.

직간접적으로 생산, 소득,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2조원 이상 발생하고 8000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봉화군은 특별지원금 120억원을 포함해 60년간 총 469억원이 지원된다.

직간접적으로 생산, 소득 유발효과가 1조원 이상 발생하고 4000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지역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생활환경 개선, 관광자원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농업용수 및 식수 부족, 홍수 피해, 산불진화 용수 확보 등 여러 가지 지역적 문제도 함께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양수발전소 건설지원 전담조직(TF)을 구성, 한수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 인·허가, 이주대책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무엇보다 양수발전소를 거점으로 하는 관광

자원화, 주민소득사업, 이주민 복지증진, 지역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차는데 행정력을 쏟아붓는다.

도는 국비 확보와 도비 지원 등 아낌없는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잠재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영양·봉화 양수발전소 유치로 경북도가 원자력발전소와 더불어 전국 최대 전력산업의 중심

도시로 우뚝서게 됐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안정적이고 값싼 친환경 전력이 필요한 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발전소 주변 지역과 연계한 복합관광지 개발 및 연관 산업 육성 등 에너지 분권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에 새 희망을 주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용·권윤홍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보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 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www.dgy.co.kr 전자우편:dgynews@daum.net

발행인 **김영숙** | 편집인 **김성용** | 편집국장 **김현석** | 부사장 **조여은**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임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산시의회
Gyeongsan City Council

시민이 행복한 경산시!!
경산시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대구굴기 향해 모든 역량 결집”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경제로 전환”

홍준표 대구시장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2024년 대망의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구시장으로 취임 후 지난 1년 6개월 동안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를 건설하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대구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고, '한반도 3대 도시'라는 옛 명성을 되찾고자 '대구굴기(大邱崛起)'를 천명하고 시정 전방위에 대개혁(大改革)을 단행했습니다. 지난 한 해는 TK신공항 건설을 통해 새로운 하늘길을 여는 일과 군사시설 이전, 산업구조 대개편 등 미래 50년



영의 핵심 틀을 마련했습니다. 새 해에도 저와 대구시 공직자들은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대구굴기를 향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특히, TK신공항은 SPC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업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인 '달빛철도

특별법'은 반드시 국회 최종 문턱을 넘어서 신공항 개항에 맞춰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방부와 MOU를 맺은 도심내 군부대 통합이전은 후속 절차를 본격 추진 하겠으며, 5대 미래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산업구조도 더욱 강력히 재편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은 대구굴기의 핵심 정책들을 더욱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지금의 이 시기를 대구가 비상했던 위대한 시대였다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극세척도(克世拓道)의 자세로 반드시 '한반도 3대 도시' 위상을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경북지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 하는 마음은 언제나 설레임으로 가득하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벌써 두발들 들썩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과감한 도전으로 우리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 경북이 대한민국 대도약을 견인하는 '새로운 경북시대'의 길을 나서겠습니다. 지방에 살아도 성공할 수 있고 행복을 누리며 다양한 가치가 존중받아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우리



의 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학과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교육을 혁신하고 인재를 키워 지역사회의 창의를 기운을 총만하게 하고 민간자본이 자연스럽게 지역에 투자되고 우리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들을 할 때 바로 지역이 살만한 곳이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경제로 전환해 재정사업이 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올해 과감한 도전으로 우리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 경북이 대한민국 대도약을 견인하는 '새로운 경북시대'의 길을 나서겠습니다. 지방에 살아도 성공할 수 있고 행복을 누리며 다양한 가치가 존중받아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생명과 도약을 상징하는 청룡(靑龍)의 기상처럼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있는 도전과 변화의 의지로 성공하고 행복할 기회를 만들어 내는 새로운 2024년으로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미래역량 교육으로 교육본질 구현”

“질문 넘치는 교실·디지털 대전환”

강은희 대구교육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의 아침을 열었습니다. 용기와 창의성을 가지고 도전하며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대구교육은 지난 5년간 공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2023년은 어느 해보다 공교육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해였습니다. 안타까운 일도 있었지만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고 희망을 만들고 싶은 선생님들의 열망이 넘쳐났습니다. 국민 모두가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다짐의 해이기도 했습니다. 교육과정 개편, AI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역량과 인성 함양 교육, 다문화 사회와의 교육의 차질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학령인구 감소, 학교 구성원들 간의 갈등, 교육재정 축소 위기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교육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합니다. 교육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보다 미래를 만들어가는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공유와 협업의 시대정신은 학교 문화의 변화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 주체들 간 존중과 배려,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관계 구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좋은 학교'를 이루는 기반입니다. 2024년에는 그간 단단히 다져온 대구미래역량교육을 더욱 발전시켜 교육의 본질을 충실히 구현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대구교육'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임종식 경북교육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경북교육가족 여러분! 갑진년 청룡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2024년에는 '성장, 조화, 미래'를 핵심 가치로 해 '제일 먼저 새롭게, 보다 높이 이루고, 가장 널리 누리자!'라는 전략으로 따뜻한 경북교육을 세계교육 표준, K-EDU의 원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첫째, 질문이 넘치는 교실과 디지털 대전환으로 학습자 주도성을 키우겠습니다.



둘째, 다양성이 공존하고 서로가 존중하는, 조화로운 교육공동체 회복에 힘쓰겠습니다.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학생 정

신건강 위기관리 전담팀을 운영하고 교원보호 긴급지원단 운영, 교원배상 책임보험 보장 확대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셋째, 글로벌 미래 역량을 키워 K-EDU, 세계교육의 표준을 창출하겠습니다.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세계시민교육과 생활영어 교육을 강화하고 과테말라, 에티오피아 등에 정보화 지원 사업과 컴퓨터 나눔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024년 푸른 용의 활기찬 기운으로 더욱더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33명 의원 모두 전심·전력 하겠다”

“행복지수 높이는 것이 의회 책무”

이만규 대구시의장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상서롭고 길한 청룡의 기운이 깃든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밝고 복된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대구시는 대구경북신공항 추진과 군위군의 대구 편입,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그리고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와 미래차 첨단산업 특구 등 5대 미래산업 육성과 전략적 기업 투자 유치까지 50년 미래 변영과 대한민국 중남부 신경재권 구축을 위한 비옥한 토양을 다져왔습니다. 이 치열한 노력은 지방시대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앞장서 만들어왔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그 기반 위에서 탄실하게 열매를 키워가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2024년 또한 변수가 많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 곳곳 골목상권 공동체 모두가 상생하는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함

께 연구하겠습니다. 허례허식보다는 의회의 역할과 본질에 집중했던 기초 또한 지켜갈 것입니다. 대구의 변화와 혁신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중남부권 글로벌 성장 거점으로 다양한 경제활동의 기회가 열려 있는 도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도시로 더 크게 비상해 갈 수 있도록 대구시의회 33명 의원 모두는 올 한 해도 전심과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청룡의 길한 기운이 충만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배한철 경북도의회장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을 의미하는 청룡의 해인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도민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물가를 비롯한 경제 문제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올해도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여러 문제는 있지만 경북의 역량이라면 새로운 희망으로 도약하는 한해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에도 우리 도의회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사람들이 경북으로 모여드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민간이 믿고 투자하는 기업 환경, 소상공인이 안심하는 든든한 경제, 개성을 살리는 다채로운 청년 정책, 취약계층을 보살피는 두터운 복지, 문화로 이끄는 지역균

형발전, 탈힘되고 더 돈 되는 농업, 교통망을 비롯한 인프라 구축, 수도권 못지않은 교육을 실현할 정교한 정책을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경북도의회가 지방시대를 만들어간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도민이 주인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새해에도 도민 모두가 행복한 '더 나은 경북'을 만드는 '도민을 위한 열린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가정과 직장에 기쁨과 행복이 늘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희망특별시 포항

손에 잡히는 경제 희망특별시 - 푸르고 편리한 환경 희망특별시 - 내 삶이 즐거운 복지 희망특별시 - 로 더 큰 포항을 향해 새롭게 도약합니다!

신산업 육성 생태계 구축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구축	신산업 육성 생태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다변화 3(이차전지·바이오·수소) + 1(철강고도화) 일자리 1,000개 창업, 10,000개 양질 일자리 GRDP 2018년 18조 → 2030년 30조 관광 1,000만 관광시대 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린웨이 3대 프로젝트 완성 도시재생 3대 재생사업 완료 생태하천 4대 하천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육아 공공지원 및 인프라 확대 체육 집 앞 5분거리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재난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복구체계 완성 문화예술 인프라·프로그램 확대

활동해 경제수도 도시
친화경 생태 도시
100세 행복도시

대구시, 어르신 교통복지 확대
대중교통 무료이용 연령 조정
경북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최초로 도입 시행

■대구시 달라지는 제도

대구시는 2024년 새롭게 시작하거나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2024 달라지는 제도'를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해 시민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손쉽게 만나 볼 수 있도록 한다고 1일 밝혔다.

'2024년 달라지는 제도'는 시민생활에 유용한 33개 제도를 경제·생활, 보건·복지, 출산·보육, 소방·안전, 환경·위생의 5개 분야로 나누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경제·생활 분야에서 눈에 띄는 것은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이용 연령의 조정이다.

새해부터 대구시의 버스 무료 이용 연령은 현행보다 1세 낮아진 74세 이상, 도시철도는 1세 높아진 66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는 대구시가 지난해 전국 첫 시행한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 지원' 적용 연령의 단계별 확대에 따른 것으로 2028년부터는 도시철도와 버스 모두 70세 이상으로 통일된다.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 지원'은 대구시가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과 감사의 취지로 시행하는 정책으로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교통복지를 지원한다.

월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 환급 할인이 되는 K-패스도 새해 5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 제도가 K-패스로 변경되면서, 보다 편리한 이용방법과 함께 적립률은 상당히 더 교통비 절감 효과가 더욱 커질 예정이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강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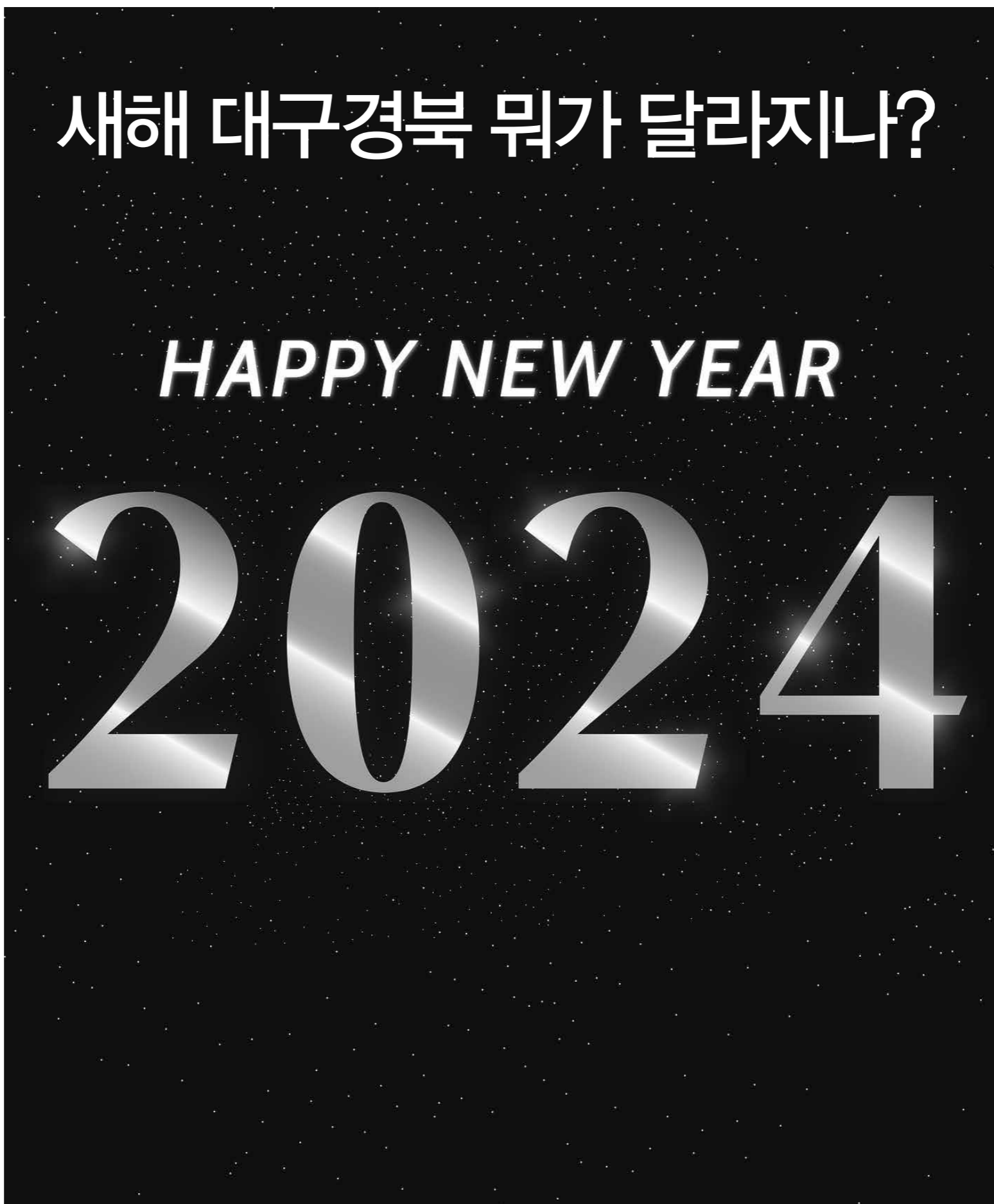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해 '참전 유공 명예수당'을 월 13만원으로 3만원 인상해 지급하고, 독립유공자 등에게 월 7만원 지급하던 보훈예우수당도 새해부터는 10만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대상자는 기존 1-5구간에서 6구간까지 확대해 법정급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는다.

2024년 첫 시행하는 다문화가정 교육활동비 지원은 학생 1인당 연 40~60만원 지원을 통해 저소득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력 격차 완화를 돕고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도 도입되어 발달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이 외에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2만 3000원에서 월 33만 4000원으로 인상돼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액은 4인가구 기준 최대 183만 0원으로 인상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완화해 주거안정을 도모



하고 아동생활시설 등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도 10만원 올려 월 5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보육 분야에서는 출산율 증대를 위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다자녀 기준을 바꾸고 각종 혜택도 확대한다.

2자녀 이상 가정도 새해부터 대구시 다자녀 우대카드 '아이조아카드'를 발급받아 '어린이 세상', '대구미술관' 등 대구시 산하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과 300여개 가맹점에서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현재 시술 1회당 11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170만원까지 늘리고, 생애 최초 난임 진단 검사비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최대 규모이다.

소방·안전 분야에서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되고, 소방시설관리업을 전문소방시설관리업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분리해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전문성을 높인다.

다세대·연립주택은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고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사업장에는 화재 등 재해예방을 위한 예방 규정 이행실태 평가가 시행돼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환경·위생 분야에서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의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한다.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약품에 대해서는 불검출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는 축·수산물 동물약품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도 도입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시민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많아 이를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니 대구 시민분들은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도 달라지는 제도

경북도는 새해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를 처음 도입한다. 농기계 사고 증가에 따라 농기계 종합보험료를 처음 지원하고 성실·모범 납세자를 우대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10만원 지급한다.

경북도는 내년 사업비 14억 3930만원을 마련해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1인당 연간 1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가운데 종사자 수당 지원 대상인 1만 4천 393명이다.

복지포인트는 당해 연도 내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 시 소멸하며 이월은 불가능하다.

종사자 개인별로 복지포인트를 먼저 사용하고 환급신청을 하면 입금해준다.

복지포인트는 건강관리(질병 치료·건강검진·운동시설 이용), 자기 개발(학원 수강 및 온라인 학습·도서 구입·시험 응시 비용), 여가 활동(레포츠·여행·공연 관람)에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할 증대에 따라 종사자 처우를 개선해 사기를 진작하고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복지포인트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농기계 보급 확산으로 농기계 사고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농기계 종합보험료를 신규 사업으로 지원한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손해·대인·대물배상은 물론 농기계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행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도는 농기계 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인데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까지 빈번히 발생해 재해에 대비한 예방적 농기계 보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규 사업으로 마련했다.

지원 대상 농기계를 1만 7천여대로 파악하고 내년에 75억원의 사업비로 보험료의 70%를 지원한다. 자부담은 30%다.

보험 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인 지원 대상이다.

도는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도는 성실납세 문화 조성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을 우대 지원한다.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내년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상반기 중에 우대 사항을 시행할 예정이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성실·모범 납세자를 선정해 표창·현관 수여, 납세자 홍보, 금융 혜택, 세무조사 유예, 행사 초청 등 우대한다.

도는 최근 맨발 걷기가 유행함에 따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맨발 걷기를 생활체육으로 활성화한다.

5개 시군에 맨발 걷기길 조성을 지원한다.

공모나 시범사업으로 5개 시군에 황토길, 모래길 등 사업 대상 부지에 적합한 맨발 걷기길을 만든다.

김대일 경북도의원이 발의해 제정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해 11월 공포됨에 따라 맨발 걷기길 조성·확충·정비, 관련 행사 개최 및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도 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인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위축에 대응해 수산물 소비 촉진 활성화와 마케팅을 지원한다.

수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 수산물 소득 증대를 위한 할인 행사를 추진한다.

수산물 시장 할인쿠폰 발행, 수산물 및 가공업체 대상 할인 직거래 장터 개최와 할인사은 품 증정, 시군 쇼핑물 연계 할인 프로모션을 지원한다.

조미경 기자

경북에서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잡다!

혁신의 에너지 ENERGY 성장의 시너지 SYNERGY

경북의 미래 신산업을 선도하는 산업단지

- 포항 블루벨리국가산단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 구미 국가4·확장·하이테크벨리국가산단 강소연구개발특구
- 안동 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 산업용 헬스 규제자유특구
- 경주 원자력연구단지 원자력 혁신기술개발·선도 혁신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

-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조례 등에 따라 재정자금 지원
- 국내기업 및 도내기업 입지시설 자금 지원
- 수도권기업 이전, 지방 신·증설기업 재정자금 지원
- 외국인 투자지역 조세감면 및 임대료 감면

단지명	소재지	주요 입주업종	산업시설용지 분양면적 / 분양가격	분양문의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단	포항시 남구 동해면, 창기면, 구룡포읍 일원	자동차부품, 선박부품, 기계부품, 철강부품, 에너지/IT, 화학 등(* 임대전용 50만㎡)	3,604천㎡ / 203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053-603-2585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포항시 북구 곡강리, 용항리 일원	1차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등	1,295천㎡ / 257천원/㎡	포항시청 054-270-2823, 3813
상주 일반산업단지	상주시 현신동 일원	금속가공, 전기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기계 및 장비, 식료품 등	238천㎡ / 112천원/㎡	상주시청 054-537-7411
경산4 일반산업단지	경산시 진량읍 신제리, 다문리 일원	정밀기기산업, 탄소융복합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가구 제조업 등	1,066천㎡ / 293천원/㎡	한국산업단지공단 070-8895-7696
고아제2 농공단지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 일원	통신장비, 전기장비, 운송장비, 식료품, 섬유,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비금속가공 등	165천㎡ / 284천원/㎡	구미시청 054-480-6137

주낙영, 2024 이택상주 정신...시민과 함께 더 크게 전진

새해포부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미래 경주 발전 초석 다지는 큰 그림
올해 청년 임대주택 71호 공급 박차
서민생활안정 민생경제살리기 올인

주낙영 경주시장의 새해 포부는 너무 크다. 2024 갑진년 새해는 신라천년왕국의 부활이라는 신호탄이다.

주시장은 2024년의 최대 역점과제는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다.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반드시 개최될 수 있도록 마지막 결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지속 추진과 경주형 e-커머스 활성화로 도심 경제를 부활시킨다. 옛 경주역 등 폐철도 및 폐역부지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부지매입과 문화재 발굴 조사 등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한다.

그는 아무리 어려운 난관이 있더라도 서로 뜻과 힘을 모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이택상주(麗澤相注)의 정신으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큰 결심으로 더 크게 전진한다.

■ 새해 첫 타종 경주발전다짐

경주시가 1일 신라대종공원 일원에서 2024년 갑진년의 희망찬 출발을 알리는 '제야의 종 타종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주낙영 시장, 김석기 국회의원, 이철우 시의회 의장 및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신라대종공원에서 시민들과 함께 해 매우 뜻깊다. 갑진년에는 시민 여러분의 꿈과 희망이 모두 이뤄지길 기원 드린다"고 전했다.

신라고취대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동서 화합을 위한 자매도시 경주-익산 동시 타종행사가 진행됐다.

두 도시 간 이원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주낙영 경주시장, 정현을 익산시장이 각 도시의 특산품인 교통법주와 호산춘을 나눠 마시며 화합과 우정을 다졌다.

경주와 익산 간 시민합창단의 공연으로 행사 참석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했다.

자정이 되자 39명의 시민대표가 참여해 두 도시 간 교차로 총 33회 타종이 울렸다.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은 덕담을 나누며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시는 행사 당일 새해를 맞아 신년운세와 타로 카드 부스를 운영했으며, 경주시종합자원봉사 센터에서는 따뜻한 어묵과 차를 무료로 제공해 추위를 녹였다.

■ 올해 청년 임대주택 71호 공급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주거문제 해결

경주시 신골든 창업특구 조성사업

청년 창업팀



을 위해 올해 '청년 임대주택'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교통과 생활이 편리한 시내에 위치한 건물을 직접 임대·매입해 입주자들에게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받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입주시켜 주거안정과 청년들이 찾아오는 경주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3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임대(50가구)·매입형(21가구)의 2가지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임대형 청년 임대주택은 기존 건물을 시에서 임대해 청년들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매입형 청년 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1동을 매입, 새단장 후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매입형 임대주택은 거주시설 외 1층에 청년창업자들을 위한 시제품 및 전시회 공간은 물론 복합문화공간도 마련돼 있어 입주자들 간 자유롭게 소통하고 정보도 공유할 수 있다.

입주자들은 월 5만원(1인당)의 사용료를 비롯해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부담하면 되고, 2년 간 거주할 수 있으며 1회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임주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1인 가구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로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라면 가능하다.

올 4월까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관련 조례 제정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5~6월 입주대상자 모집·선정 후 7월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향후 각 부처 청년주택 관련 공모사업에도 응시해 100여 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현재 주택가격과 금리 상승으로 인해 청년들이 주택 마련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며 "앞으로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집 걱정에서 벗어나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해 나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

경주시가 기업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자금지원, 기반시설 구축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올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금 등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42억 원,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과 강소기업육성 기반구축, 여성기업 활성화 등 기업체근로자 및 기업인에 12억 원을 지원한다.

맞춤형 기업 서비스 패키지 제공에 이어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도 확충한다.

두류공단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공장 활성화에 10억 원이 투입된다.

외동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명계3 산단 공업용수도 건설, 석계2 산단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 등 산업단지 조성·관리에 54억 원이 지원되는 등 기업투자 활성화에 총 118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동행운전자금 조성,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의 2개 신규 사업을 추가해 금융지원 강화에 앞장선다.

재정 지원, 기업고충 해결 등으로 기업성장을 이끌고 이를 통해 투자를 확대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동행운전자금은 기업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서를 담보로 기업 당 최대 3억을 추천해 2.5%의 이차보전과 최대 1.2%의 보증수수료를 지원한다.

매출채권보험료는 대금 미회수로 인한 파산 방지를 막기 위해 지역의 매출채권보험 가입 기업에 최대 50만원까지 가입 보험료를 지원한다.

지난해 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한국수력원자력 상생협력기금 등을 포함한 2722억원 규모의 용자추진을 시행해 기업의 이차 부담을 경감했다.

건천산단에 87억 원을 들여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기를 차단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했다.

5억 원으로 80여개 기업에 170여 명의 근로자가 기숙사 임차비 지원 혜택을 받았다.

주시장은 "강소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가 넘치는 경제산업도시 경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생활악취 없앤다

경주시 안강읍 아일천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시달려온 생활악취가 해결된다.

안강읍 일원 강교리에서 아일천까지 이어지는 우수관로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해당 구간으로 유입되는 각종 오수로 인해 안강처리장의 오수 부하량이 급증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기획됐다.

3단계로 나눠 실시된 사업은 2022년 1단계, 2023년 2단계 공사를 마무리 짓고 마지막 3단계는 내년 하반기까지 준공한다.

사업비는 11억원이다.

앞서 1·2단계 공사에서 5억 5000만원이 투입됐다.

마지막 남은 3단계 공사에 5억 5000만원을 쏟아붓는다.

총 연장 1.8km 구간으로 앞서 1·2단계 1.07km 구간이 마무리됐고 내년 하반기까지 나머지 73km 구간을 정비한다.

시는 공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안강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오수 부하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수처리장의 증설 필요성을 억제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우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안강읍 아일천 일대의 생활악취문제가 해결돼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용찬기자/사진 경주시 제공



“개신창래’ 자세로 지속가능한 도시 청도 만들 것”

김하수 청도군수 신년사

사랑하고 존경하는 청도군민, 600여 동료 공직자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희망찬 기운이 군민 여러분께 깃들길 바라며,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길을 열어 미래를 창조하자'는 '개신창래(改新創來)'의 자세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청도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달려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는 군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공약사업과 군정 역점사업 추진의 가속도를 높이고 평생학습 행복도시 조성, 문화예술관광 허브도시 조성, 농업 대전환, 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는 한해로 만들겠습니다.

첫째, 미래를 향해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 행복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평생교육 5개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청도 인적자원개발 학과를 본격 운영합니다. 더불어 행복 아



지원하기 위한 인재양성원 운영,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 작고 강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등으로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자발적으로 학습하는 생태계를 구축해 청도를 명품교육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문화예술관광의 허브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386억원 규모의 청도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꼼꼼히 추진 중이고 예술인 창작공간도 금년에 착공할 계획이며 산림치유 힐링센터, 성곡담 생태관광벨트 조성, 자연속 물러코스터 빌라인 조성 등 다양한 관광활성화 프로젝트가 추진 중입니다.

지역 문화자원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특색있는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청도읍성내 전통 놀이

공간을 조성하고, 청도 신화랑풍류마을 환경 개선, 풍월관 건립, 유등연지 경관 조성 사업을 통해 청도 관광 9경의 즐길 거리를 더욱 확충하겠습니다.

또 정월대보름 축제와 청도반시 축제 및 세계 코미디 페스티벌 등 축제의 질을 업그레이드시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확대해 13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셋째, 미래를 준비하는 농업 대전환으로 부자 농촌시대를 열어겠습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해 대규모 친환경 명품 쌀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과실 전문 생산단지 조성을 확대하며, 스마트 영농체계 구축과 신소득 작목 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을 통해 농산물 생산 다변화로 2배 이상의 농가 소득 창출을 실현하겠습니다.

또 농산물 가공·창업 지원,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경쟁력 강화,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운용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이 맘 쉼터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 강소농 육성, 농업인 경영 마케팅 교육 등 농가 맞춤형 교육을 통해 농업 전문성을 강화하며 국제 농업 학술 세미나를 개최

하는 등 차세대 농업 리더 양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따뜻한 복지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령화 비율이 높고 진행 속도가 빠른 우리 군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에게는 활기차고 안전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제공, 경로당 환경 개선, 행복노우미 사업 등으로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생활문화 거점 공간인 청도 드림생활봉사센터는 금년 상반기 개소를 목표로 공사 중이며,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 장애인의 생활안전과 사회참여 확대,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 및 청소년 역량 강화, 다문화가족 자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등을 통해 모두가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섯째, 군민 모두가 상생하는 활기찬 경제도시를 이루겠습니다.

7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는 청도자연드림파크 조성사업 시행과 공장설립에 필요한 원스톱 지원을 강화해 기업유치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

습니다.

지역 상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 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하며, 지역 특색을 살린 청도만의 먹거리촌을 조성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여섯째, 골고루 잘사는 균형 있고 조화로운 미래도시를 창조하겠습니다.

명품 전원주택단지 '청도 인터내셔널 유 빌리지' 조성과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해 은퇴자와 청년층의 이주를 유도하고 지역발전의 핵심과제인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강화,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설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연료비 혜택 확대, 노후 상수도관 정비 등을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과 동료 공직자 여러분.

새해에도 군민들 곁으로 다가가 소통하며 '청도를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 하기 위해 힘차게 달리고 군민들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공정과 형평'의 행정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갑진년(甲辰年)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여러분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끊임없는 혁신, 함께하는 변화...칠곡의 새 도약”

김재욱 칠곡군수 신년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희망 가득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로운 시작은 희망과 함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승전하는 푸른 용처럼 칠곡군이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민선 8기 주요 사업들을 가시화하고 동시에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군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전, 끊임없는 혁신, 함께 하는 변화를 이뤄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변화와 혁신의 길에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올해 군정 역점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차리는 행복한 삶과 지역발전의 핵심동력입니다.

중소형 첨단농기계 소재·부품 개발 및 제작 지원을 위한 첨단농기계 실증랩 팩토리 조성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왜관일반산업단지 산단 대개조와 연계한 노후화된 산업단지 배후시설 조성, 기업과 청년이 상생하는 청년 일자리와 신중년 일자리 확대 등으로 고용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칠곡우선운동'을 통해 지역 업체를 우선 이용하고 지역생산물 구매를 늘려 골목경제를 살리고 영농기술의 혁신과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농



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농가 시설 현대화로 고효율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 농업지원과 농업소득 다변화를 통해 지속적인 농업이 가능하도록 돕고 농산물 가

공장업 리빙랩 시스템 도입·드론 공도방제로 영농을 과학화하고 전문농업 인재와 차세대 청년농업인을 육성해 변화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도시 인프라 구축으로 미래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과 연계해 대중교통 광역환승제와 노선체계를 개편하고 군 청사와 왜관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교통불편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농촌협약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통해 생활SOC시설을 확충하고 왜관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북삼인평공원 조성사업, 오평-덕산 간 연결도로, 종리-구평 간연계도로 등 대형 인프라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문화·관광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여행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인문여형, 인문축제, 문화거점 조성사업 등 범정문화도시 사업 추진으로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칠곡만의 문화적 브랜드를 창출하겠습니다.

매원지, 빛꽃길 등과 연계해 매원마을을 관광자원화하고, 왜관나무 마리아와 호국평화공원 잔디휴게공간을 조성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해 여행객들로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이 칠곡의 미래입니다.

동명중학교와 신동중학교를 중점학교로 육성해 수학, 영어에 특화된 명문중학교로 만들고 칠곡미래교육지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고등학교에 수능 인터넷 강의를 지원해 대도시와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대구 북구와의 학군 조정과 칠곡영재교육원 이전·확대를 지속 추진해 지역 학생의 유출을 막고 학력신장을 돕겠습니다.

군민이 함께 어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스마트 도시 안전망 서비스 구축과 CCTV 추가 설치, AI 범죄분석 플랫폼을 통한 선별 관제로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파크골프장과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를 추가 조성해 활력이 넘치는 여가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 공직자 여러분! 새해는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임을 잊는다고 합니다.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태풍이 불어와도 나뭇가지가 꺾여도 새들의 집이 부서지지 않는 것은 바로 그런 까닭입니다.

인생 황혼기에도 새로운 도전장을 내민 칠곡 래퍼 할머니들처럼 항상 도전하는 마음으로 변화와 혁신의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포항 호미곶 해맞이객 3만여명 운집...갑진년 새해 소망 빌어

2024년 갑진년 새해, 사방신 중 동쪽을 수호하는 청룡의 해를 맞아 한반도 최동단인 호미곶에 3만여 명이 운집했다.

'제26회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이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호미곶 광장 일원에서 개최됐다. 기상 상황으로 인해 아쉽게도 맑게 빛나는 청룡의 해를 보기 어려웠지만, 3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호미곶 현장을 방문해 새해 소망을 빌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용의 승천, 함께 비상하는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을 주제로 다양한 해맞이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안전 측면에서도 철저하고 꼼꼼한 관리가 이뤄졌다. 강풍과 한파에 취약한 대형텐트 대신 컨테이너 부스를 행사장 전역에 설치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주요 교차로마다 교통인력을 배치하고 교통정보센터를 운영해 실시간으로 차량소통

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행사 중 인파 밀집에 대비한 안전 대책들도 빈틈없이 진행됐다.

행사장 가운데 재난안전상황실 및 관제탑을 설치해 순간 인구밀집도를 분석하고 스피커 방송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했으며, 인파 밀집 구간에는 경광봉, 확성기를 지참한 안전요원을 배치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

정창명 기자

살과 배움이 하나 되는 행복 의성교육

지표	정책방향
배움이 있는 교실 행복이 넘치는 학교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살과 배움이 함께하는 학교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교육 다함께 누리는 교육 복지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육 환경

경상북도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환

“지역경제 활성화 중점...모두가 행복한 복지영덕”

김광열 영덕군수 신년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30만 출향인과 동료 공직자 여러분! 2024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갑진년(甲辰年) 새해는 참으로 오랜만에 경북 대중 타종 소리와 함께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푸른 바다, 맑은 바람, 태양의 기운이 가득한 영덕에서 힘차게 울린 종소리가 온 누리에 새해의 희망을 전하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새해에도 ‘군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영덕 건설’을 위해 모든 공직자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돌아보면 지난 한 해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긴 장마와 태풍 등 자연재난의 위기를 공직자들의 헌신과 군민들의 협력으로 큰 피해 없이 극복하였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국비 확보에 헌신의 힘을 다해 전년보다 국도비가 298억 원이 증가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는 군민 모두가 행복한 영덕을 만들고, 다가오는 미래를 영덕



시대로 만들기 위한 역점시책들을 군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군정의 최우선 과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겠습니다.

2024년은 사상 처음으로 예산 6천억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경기침체에 대응한 확대 재정정책으로 지역경제를 부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사업과 산학 연계사업, 그리고 민간 자본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2026년까지 380억 원이 투자되는 스마트 수산 가공 종합단지는 동해안 최고의 수산 가공 종합단지 조성하여,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청장년 취업과 창업지원을 통해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상권의 중심인 전통시장은 권역별로 특화해 우리 군 3대 전통시장을 명품시장

으로 재정조하겠습니다.

둘째, 체류형 관광 활성화 정책으로 관광 부가가치를 높여겠습니다.

천만 관광객, 전국 해안관광 1번지의 도시 영덕군의 명성에 걸맞는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체류형 관광으로 개발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생활인구를 유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로드에 최근 열풍인 황톳길 맨발걷기 구간을 조성한데 이어 블루로드 구간별 테마로드 조성, 스테이 블루로드 축제, 관어대 이색풍경 웰니스 관광 조성사업, 문산호 리뉴얼 사업 등 우리가 가진 청정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관광 명소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영덕 춘·추계 전국 중등축구대회, 동·하계 풋볼 페스타, 전국단위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스포츠를 연계한 관광 마케팅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셋째,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복지영덕을 만들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영덕군 실버복지관 운영, 읍면 노인대학 운영, 노인 맞춤형 서비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등의 프로그램과 함께 마을회관과 경로당 신축, 마을회관 주변 정비 등 편의시설 증

진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군의 내일을 이끌어갈 미래세대 위한 투자도 지속하겠습니다.

군민의 뜻을 모아 조성한 110억 원의 교육발전기금을 통해 연간 200여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대도시와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다양한 장학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21개 초·중·고에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고교 특성화 교육과 청소년 보호 육성사업, 영덕 한빛교육바우처 지원사업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인재양성관, 통합공공도서관, 청소년수련관 건립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청소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교육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겠습니다.

넷째, 농산어촌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내년도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예산을 올해보다 3.5% 증액한 1124억 원을 편성하여 살기 좋은 농산어촌, 경쟁력 있는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촌지역의 활력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과 신활력 Y센터 건립

과 농어민 수당을 영덕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겠습니다.

또 농어민 재해보험 및 안전보험 가입 확대 등으로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영덕송이와 우리 농산물의 서울 특판행사를 개최해 새로운 판로 개척과 홍보로 우리 농·수·특산물의 브랜드 가치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재난대비 인프라 구축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안전한 영덕, 살기 좋은 영덕을 만들겠습니다.

국비 포함 1161억 원의 재해 대응 사업비를 확보한 성과를 바탕으로 ‘급진~하저지구 연안정비사업’, ‘괴사·발영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병곡면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축산·영해·영덕·강구 도시침수대응사업’ 등 재난·재해 예방사업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여 군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정주여건 개선사업과 거점 조성 전략으로 추진해 함께 누리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강구건강활력센터, 예주 행복드림센터 등 생활SOC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살기 좋은 영덕, 모두가 행복한 영덕을 앞당기겠습니다.

“새해 군정 목표 ‘군민과 함께, 모두 잘 사는 청송’”

윤영희 청송군수 신년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료 공직자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난 한해 어려움이 컸던 서리 피해 농가와 소상공인분들의 가정에 기쁨과 희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새해 군정 목표를 ‘군민과 함께, 모두가 잘 사는 청송’에 두고 있습니다.

전년도 보다 1.8% 증액된 4745억의 예산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농업정책과 생활이 넉넉해지고 인구가 늘어나는 경제와 문화 관광정책을 추진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어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청송 공동체를 만드는 데 정성과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농업이야말로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은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농업경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날씨와 자연조건에 의존도가 높아 폭염, 가뭄 등 기상이변에 매우 취약합니다. 작년 봄에도 3900여 농가가 병해 피해를 보았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병해피해 예방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미세살수 장치 설치비를 지원하



겠습니다.

지원 한도를 2ha로 늘리고 보조 비율과 단가도 대폭 늘려서 농가 부담을 줄이고 피해예방 효과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송사과 연구단지에서 병해충에 강한 대목을 육성·보급하고 과수화상병과 탄저병 등 전염병도 선제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 재해를 예방하는 재배 기술을 보급하여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여겠습니다.

또한 농작물 재해 보험료와 농업인 안전 보험료, 농어민 수당 지원을 통해 자연재해가 유발하는 농가 경영 불안에 해소하고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농업 일손 부족이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업인력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의 농업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미래 농업의 실현을 위해 농업 노동력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농업 시스템을 바꾸어야 합니다.

꼭지 무절단은 노동력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청송군이 먼저 꼭지 무절단 사과 유통을 시작했습니다.

사과꼭지 절단은 도로 사정이 나빠던 70년대에 운송 중 과실 손상을 줄이기 위해 시작하여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도로 여건이 좋아지고 포장재가 개선된 지금은 과거처럼 과실 손상이 높지 않습니다.

오려려 꼭지를 절단하면 절단면을 통해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꼭지 절단 사과를 불량품으로 취급합니다. 필요성이 없어진 꼭지 절단이 전국적으로 660억 원이 매년 낭비되고 있습니다.

청송군은 관내 계통출하 조직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출하처를 방문해 꼭지 무절단 사과 출하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생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로 꼭지 무절단 사과 출하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경북도는 꼭지 무절단 사과 유통 확대를 경북 농업 대전환을 위한 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로 꼭지 무절단 사과 유통을 잘 정착시켜 국내 사과시장 유통방식을 노동력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겠습니다.

스마트 농업은 기후변화와 일손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민간투자 자금으로 진보면에 3만 평 규모의 스마트농업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첨단기술이 접목된 재배시설을 갖추고 연간 600억 정도의 농산물 생산과 200명 정도의 고용을 창출하겠습니다.

진보 스마트 농업단지가 청송군 스마트 농업과 연관 산업이 발전하는 토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송군 영농일자리 지원센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지원하고, 미래지향적 청송사과 재배시스템 구축과 농기계 지원,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지원을 통해 노동력은 줄고 생산성은 높은 영농환경을 조성하여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노인인구가 40%가 넘는 우리 군이 활력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품위 있고 활기찬 생활을 청송군이 돕겠습니다.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환경도 만들겠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부딪친 이웃도 살피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저출생, 고령화는 국가적 수준의 도전입니다.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는 자연 감소보다 수도권과 인근 도시로의 인구 유출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방의 인구감소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민주출을 막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인구 유출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자리와

주거환경을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정주인구와 생활인구가 늘어나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에 맞는 산업을 육성해서 청년이 지역에 거주하며 지역에서 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청송읍 월마리에 청송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월마지구와 덕리지구에도 공동주택을 건립해 주택난을 해소하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청송군과 지역대학, 기업이 힘을 합쳐 청송군 K-Us티 향노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사과축제에서 군민의 하나된 마음을 보았습니다.

청송을 변화시키는 힘은 하나되는 청송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소멸 의식으로 청송군과 군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가 있습니다.

2024년 희망을 말씀하시는 분도, 과거와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군민의 단결된 힘과 군민을 위해 일하는 청송군 공직자와 함께 희망을 기대하시는 분에게는 희망이 현실이 되고, 우려하시는 분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2024년을 만들겠습니다.

변화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청송군은 우리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NO!
술잔을 비우셨다면, 운전석도 비워주세요.

국민 전석민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영천 도약의 새로운 원년... 비룡승운(飛龍乘雲)

최기문 영천시장 신년사



영천사랑상품권은 연 800억원 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완산 상점가에 지하 주차장 건립, 구 도심 청년창업 점포에 임차료 등을 지원해서 민경제와 골목상권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희망찬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에는 힘차게 비상하는 청룡의 기운으로 소망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2023년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영천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희망의 한 해였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해 민선 8기 3년 차를 맞이하는 영천시정은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도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해 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금호·대창 하이패스 IC 개통,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완공 등 시정 역점사업들이 가시적 성과를 앞두고 있고, 우여곡절이 많았던 문화예술회관은 예산을 확보해 본격 착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랜 숙원인 제2안약장 군사시설보호구역도 해제되어, 새해 첫 시작을 힘차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알짜기업 유치와 기업혁신 지원, 각 분야 성장동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영천 도약의 새로운 원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7가지 핵심 목표를 설정하고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시민일상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키겠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에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과 지능형 스마트 선별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영천교 등 노후 교량과 산사태 취약지역 등 시민 안전을 위한 하는 요소들을 꼼꼼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치매 안심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과 정신건강 관리, 고독사 예방 등 시민의 몸과 마음 건강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진기업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력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올해는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조성을 완료해 알짜기업 유치를 총력을 기울이고 금호, 도남, 대창, 고경 일반산업단지 조기 조성사업 등 확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기업투자유치 기반을 든든히 다지겠습니다. 금호·대창 하이패스 IC 조기 개통을 추진해 경제 파급효과를 더욱 높이고 지식산업혁신센터 건립과 미래차 부품산업으로의 빠른 전환을 추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로 활력 넘치는 영천을 만들겠습니다. 영천 미래 백년을 견인할 대구도시철도 1호선

금호 연장사업은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마지막 관문에 와 있습니다. 최종 통과까지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6년 개장을 앞둔 영천경마공원은 금호 청년 이웃사촌마을, 청동·와촌 IC 연결도로 확장과 연계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성장거점을 조성해가겠습니다. 셋째, 보현산권역 관광벨트를 중심으로 영천 관광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습니다. 보현산담 출렁다리에는 이제 영천의 대표 관광지 되었습니다. 카페, 먹거리촌, 숙박 등 방문객들이 체류하며 소비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들을 확충하고 쉼과이어, 산림복합체험관, 천수누림길 등 주변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연계해 지역경제에 실질적 소득이 돌아오는 핫플레이스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부자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해가겠습니다. '영천'이라는 말이 곧 신뢰가 될 수 있도록 저품질 농산물 출하를 근절하고 고수익·고품질 재배 기술교육과 온라인, SNS 홍보마케팅을 강화해 농가소득 창출에 적극 앞장설 것입니다. 미국 첫 수출에 성공한 '영천 별마늘'은 올해, 경북 1호 마늘공판장 개장과 마늘융복합센터 건립을 추진해 경쟁력을 더욱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해외판로 개척에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고 스마트팜 조성 과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 확대, 중부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추가 운영, 청년 농업인 맞춤형 지원 확대 등 부자농촌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가겠습니다. 다섯째, 지역 미래인재들의 성장을 도와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인구감소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시는 10만 인구를 꾸준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함께 출산율도 2년 연속 전국 시구단위 1위의 위상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출산율 앞둔 예비 부모와 난임 부부를 위한 맞춤형 시책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새롭게 추진해 아이돌봄체계는 더욱 공고히 다지겠습니다. 학생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사업은 학원학습 후 귀가하는 학생까지 범위를 넓히고 초·중·고 학생들의 통학 교통비와 학교 안팎 안심케어 서비스를 지원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지역 청년들에게는 취·창업, 농업, 문화예술 등 다방면의 활동무대를 지원하고 금호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신·중년과 청년 유입을 위한 복합거점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여섯째,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복지를 늘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하고 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한 지원과 예우는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어르신 광역교통비 지원은 2028년에, 70세 이상 어르신까지 확대하고 100세 건강 시대, 시민들의 수요에 발맞춰 노인복지관과 국민체육센터 영천 제2교코골프장을 차질

없이 조성해나갈 것입니다. 시민들의 높은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줄 문화 예술회관은 올해부터 본격 착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2025년 영천시립박물관 개관과 더불어 차질 없이 추진해 문화도시, 영천의 품격을 한층 높여가겠습니다. 중앙 사거리에서 완산 오거리 구간, 동서지구 삼거리부터 신망정 사거리 구간 등 상습 정체로 불편하셨던 시민들을 위해 영화교 교량과 도로를 단계적으로 확·포장해나가고, 도시재생을 비롯한 각종 농촌개발사업과 성내동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화룡지구 대구도 주거단지 조성을 추진해 읍면동,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영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해의 신년화두는 '용이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 듯, 능력을 발휘한다'는 비룡승운(飛龍乘雲)입니다. 지난해의 좋은 기운을 이어 받아 도시철도 금호 연장, 대구 군부대 이전 등 현안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영천시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나갈 것입니다. 목표하는 일이 있을 때면 언제나 지혜와 힘을 모아주셨듯이, 올해도 시민 여러분의 힘찬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목표하는 일이 있을 때면 언제나 지혜와 힘을 모아주셨듯이, 올해도 시민 여러분의 힘찬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령군 “세계유산의 도시...성장·도약의 한해 될것”

이남철 고령군수 신년사



함입은 값진 결실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군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지산동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라는 호재와 '열린 지방시대'라는 국정기조 흐름을 기회로 삼아 2024년 고령군은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무한불성(無汗不成)의 각오로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 '젊은 고령, 힘있는 고령'에 한 발 더 다가서겠습니다. 먼저 누구에게나 열린 기회, 청년의 꿈을 현실로 펼칠 수 있는 청년희망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청년임대주택, 청년건축 시범마을, 클라인 가든 및 청년농촌보급자리 조성사업, 청년 일자리·창업지원센터 운영, 청년 창업 및 지역 정착 지원, 청년문화와 청년특화거리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가고 문화예술장작소 건립, 청년 예술인 창작지원 및 락페스티벌 등 청년 문화예술 행사 등을 통해 청년중심의 문화가 지역 곳곳에 스며들어 청년이 지역사회를 이끌고 나가

존경하는 군민과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가 뜨겁게 떠올랐습니다. 지난 한 해동안 수많은 소통 현장에서 전해 주신 소중한 군민의 소리를 군정에 녹여내고, 군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 공직자는 전력을 다해 그린바 이오산업화 소재 산업화 시설 구축지원사업,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경북형 작은정원(클라인가든) 조성사업, 세계유산축전 등 60건이 넘는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또 대가야축제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 선정,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국무총리상',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종합평가 '최우수상', 경북도 채소·특작분야 시책평가 '대상', 경북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대상', 국가안전대진관 집중안전점검 '최우수기관' 등 많은 수상으로 우리 군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군민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에

는 역동적인 고령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100만 관광객이 찾는 세계유산의 중심, 고령관광시대를 다시 열겠습니다. 지산동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는 역사·문화·관광 모든 측면에서, 고령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지구 유치와 세계유산 가야고분군 방문자센터 건립을 시작으로 세계유산 야간경관 조성, 대가야 고도 지정 등을 통해 세계유산의 보존과 역사적 가치를 높여나가고 세계유산축전, 문화유산 여행 등 세계유산 콘텐츠 활용을 통해 누구나 인정하는 세계유산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첨단 스마트 농업의 대전환을 통해 모두가 살고 싶은 미래농촌으로 변화하겠습니다. 새로운 농업인구 유인과 귀농·귀촌인을 위한 정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청년복합귀농타운, 임대형 스마트팜 등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등 농업인력뱅크 운영, 농기계 임대사업소 조성 등 농촌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시설현대화 및 스마트팜 보급 확대, 과학영농

기반 구축 등으로 스마트 농업으로의 대전환을 선도하였으며 고령딸기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 농산물가공 종합처리장 설치 등 우수한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과 유통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으로 부자농촌을 실현하겠습니다. 넷째, 대도시와 연결한 배후도시로서 나날이 발전하는 성장도시 고령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고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됨에 따라 배후도시로서 고령군의 중요성은 매우 커졌습니다. 다산면 관촌지구 개발사업과 함께 상곡·좌학지구 신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월성일반산업단지 준공에 앞서 투자유치 활성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다산면에 집약된 산업단지 일대를 지역 성장발전의 거점,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여 진정한 지방시대의 문을 힘껏 열겠습니다. 미래성장 동력이 될 친환경 청정에너지 발전소와 신규 산업단지 조성, 노후산업단지 대개조사업, 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산업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 군민 모두를 포용하고 행복을 키우는

복지 실현으로 삶의 가치를 더하겠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복지 인프라 조성을 위해 장애 인복지센터 및 노인복지센터가 건립 중이며, 일산동복합서비스와 행복설계사 지원 등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보급자리, 따뜻한 고령을 만들겠습니다. 군민체감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 헬시하트 사업 및 감염병 대비 태세 확립 등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길 것이며 산후조리비 지원 등 고령군만의 특색 있는 출산지원 정책을 추진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다함께 돌봄센터 및 지역 아동센터 운영 지원 등이 키우기 좋은 최적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갑진년(甲辰年)을 한해, 푸른 용의 기운만큼이나 역동적이고, 거침없는 군정 추진으로 지역의 대도약을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젊은 고령, 힘있는 고령'의 목표를 향해 다시, 함께 달려 갑시다.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한 일상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령군의회의는 군민을 위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고령을 밝히는 새로운 불빛 | 고령군의의회는 언제나 군민 여러분 곁에서 주민의 대변자와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여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령군의의회 GORYEONG GUN COUNCIL

구미, '미래 50년을 위한 혁신기반 마련'에 주력

김장호 구미시장 신년사

존경하는 41만 구미시민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갑진년(甲辰年)을 맞아 새로운 희망이 늘 함께 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구미재창조'를 염원하는 시민과 함께 정말 열심히 달렸습니다. '방산혁신 클러스터'와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라는 대형 국책 프로젝트를 유치하며 구미의 미래를 열어갈 토대를 마련했고, '푸드페스티벌'과 '라면축제'는 각각 15만명, 10만명이 다녀가면서 이제 우리 구미도 '노잼도시에서 풀잼도시'로 변모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경부고속도로 개통 54년 만에 구미를 동서로 관통하는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 사전타당성조사 착수를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8914억원의 국·도비 사업 확보와 5052억



원의 공모사업 선정을 이루어 냈으며, 올해 본예산 최초로 2조원을 돌파(2022년 1.5조원 대비 5천억원 증액)하며 구미재창조를 열어가갈 재정적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41만 구미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고개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급년에 우리 구미시는 '미래 50년을 위한 혁신기반 마련'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먼저 '반도체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후속조치에 즉각 돌입할 것입니다.
이미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 사업 추진이 확정되

었으며, '첨단 방위산업 진흥센터'와 '방산특화 개발연구소' 구축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AI 서비스로봇 보급사업 추진,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착공 등 차세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투자유치 진흥기금' 마련, '구미국가5산업단지 2단계 지역' 신속 착공, 30만평 규모의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 등을 통해 기업유치를 위한 인프라 조성에 속도를 낼 것입니다.
둘째, 신공항 시대를 대비한 '광역 교통망 확충'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 건설, 장천과 군위를 연결하는 '국도 67호선' 개량, 해평에서 서군위IC로 이어지는 '지방도 927호선' 확장 및 '국도 승격도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KTX-이음 구미역 정차', '대구-경북 광역철도 동구미역 신설' 등 철도망 추가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역할을 결집하

여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낭만에 물결과 문화를 꽃피울 '낭만문화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선산권, 낙동강권, 도심권(금오산), 인동권(천생산)을 중심으로 권역별 관광인프라를 체계적으로 보완해나가는 한편, 제62회 경북도민체육대회와 제32회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 명품 스포츠도시 구미의 이름이 2025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전국 4만여명이 참여하는 '한국후계 농업경영인 전국대회'가 개최되며, 450억 원 규모의 '농촌협약(무, 선산, 산동, 장천)' 사업도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밀산업 벨리화 단지'의 확대, 「들녘특구 운영」 등으로 구미시가 국내 밀산업 육성을 선도함과 동시에, 쌀소비 감소에 따른 농가소득

보존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본부터 다져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365소아청소년진료센터, '아픈아이 돌봄센터', '연중무휴 돌봄 어린이집', '24시 마을 돌봄터' 등을 우선 개소하였고, 올해는 '신생아 집중치료센터'의 설치도 추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미 진학진로 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지역인재 중심의 '장학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올해 우리 구미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지정 등 제도약을 위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4년, 청룡과 같이 비상하는 구미시를 만들기 위해 다시 한번 시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정에 늘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 甲辰年 '또 다른 기적이 실현되는 희망의 한해'

신현국 문경시장 신년사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갑진년(甲辰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길 기원 드립니다.
지난 1년 6개월 힘든 일도, 어려움도 많았지만 시민 여러분의 믿음과 동료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으로 새로운 시정의 밑그림을 그리고, 큰 성과도 이루어 냈습니다.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인 문경대·송실대 통합을 위한 업무협약이 성과단계에 있고, 백종원 대표와의 MOU도 이끌어냈습니다.
주출산 케이블카와 하늘길 조성사업은 국·내외 대기업 등 민간 투자유치에 새로운 불씨를 지켰습니다.
문경시멘트공장 부지활용을 위한 민간사업자가 선정되었고, 경북 소방장비기술원과 농민사관학교도 열정과 정성으로 유치했습니다.
역세권 도시개발, 농산물도매시장 건립 등 미래 성장 동력의 중심이 될 핵심 사업들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2024년은 또 다른 기적이 실현되는 희망의 한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온 성과를 바탕으로 중부내륙고속철도 개통에 발맞추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먼저 대학·기업 유치의 새 역사를 쓰겠습니다.
송실대 문경캠퍼스 건립은 MOA 체결과 함께 학과신설 등 통합의 방법을 구체화하고, 한국체육대학교 이전에 올인하겠습니다.
도 소방본부와 협력하여 소방장비기술원을 전국 최고의 시설로 조성하고, 농민사관학교 이전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정부 국정과제인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열분해산



업선도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신규 산업단지과 농공단지 조성 등 막힘없는 투자환경을 준비하여, 미래 신성장 산업의 투자유치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체계적인 지역개발사업으로 도시 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종합터미널, 국도3호선 연결도로 개설 등 역세권을 다양한 테마로 개발하고, 농산물도매시장 및 물류단지 조성, 문경새재 관광지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문경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창조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25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자 확정된 문경시멘트공장은 테라로사와 함께 독창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단산터널 개통에 힘써 지역균형발전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재미와 감동으로 사람이 찾는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주출산 케이블카와 하늘길, 문경새재 테마파크를 세계적인 명품시설로 조성하고, 더본 코리아와 적극 협업하여 먹거리 관광의 대전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돌리네스지 탐방센터 조성과 탐사르 습지도시 인증, 에코월드 활성화에 더욱 힘써, 천만 관광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넷째, 활력이 넘치는 스포츠·체육도시를 육성하겠습니다.
73건의 국제·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 120명의 프로기사가 참여한 문경새재 바둑대회, 천하장사씨름장 준공 등 지난 한해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6000여 명이 참가하는 세계태권도 한마당 등 각종 대회

를 성공적으로 치러내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고, 2025 아시아 소프트테니스 선수권 대회, 2031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를 박차를 가해, 우리시 스포츠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한국체육대학교 이전의 당위성을 알려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아낌없는 지원으로 일등 농업·농촌을 실현하겠습니다.
획기적인 생산기술과 품종 개발, 농·축산 분야 보조금 확대 지원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감홍사과, 오미자 재배면적 확대와 돌잔치 사육농가 증대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추가 설치, 농촌인력지원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친절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가족센터 건립, 진폐재해자 복지회관 신축 등 다양한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빠짐없이 챙기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성황리에 개최된 영강 어린이 물놀이 축제를 확대·운영하고, 평생교육과를 신설하여 누구나 교육의 혜택을 누리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시민과 함께 모든 정성을 쏟아, 세계 1등! 무한친절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동료 공직자 여러분!
아직 가야 할 길도 멀고, 때로는 난관도 있겠지만, 함께 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여러분과 두 손을 맞잡고 또 다른 기적을 이뤄내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김학동 예천군수, 2024년 업무 시작



김학동 예천군수는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1일 남산중훈탑에서 신년 참배를 시작으로 새해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참배에는 김학동 예천군수, 최병욱 예천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경북도의원, 실과소장 및 읍면장, 보훈단체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 분향, 묵념 순으로 경건하게 진행됐다.
김군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예천군의 발전을 위한 각오와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김학동 군수는 "2024년은 모든 부분에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예천을 만들 것이며 모든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해가 되도록 전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병욱 기자



K-배터리의 미래를 충전하다 경상북도 상주

미래산업을 움직이는 이차전지의 중심!
경상북도 상주가 K-배터리 허브 도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충전하겠습니다.

- SK머티리얼즈그룹포인 1조 원 투자유치
- SK에코플랜트와 '상주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 위한 MOU 체결
- (주)아바코와 300억 원 투자 MOU 체결

 **상주시**
SANGJU CITY

‘금석위개(金石爲開)’의 정신으로 힘차게 도약

박남서 영주시장 신년사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향을 사랑하는 향우 여러분!

2024년 갑진년 甲辰年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용맹함을 상징하는 ‘청룡의 해’를 맞아 모든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힘차게 도약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한 해, 대내외적인 경제 위기와 예상치 못한 폭우피해 등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쉽지 않은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시민 여러분의 하나된 힘으로 위기는 성장의 기회가 되고 장애물은 도약의 발판이 되어 영주의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기쁨의 순간에도 위기의 순간에도 늘 함께하며, 영주시정에 큰 힘을 실어주신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해 영주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박남서 영주시장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시민 여러분의 오랜 염원이었던 영주 첨단배어링 국가산업단지 지정·승인과 영주 댐 준공을 동시에 이뤄내면서, 지역의 경제와 관광산업 성장의 전금 같은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소백산 국립공원의 영주시 구역 1,705㎡가 공원 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오랜 기간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최대 숙원이 해결되었으며,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종합장사시설 건립 부지를 최종 확정하여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힘없이 노력한 결과, 각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SK스페셜티의 과감한 투자결정에 힘입어 영주시 역대 최대 규모인 5,000억 원의 신규 투자유치가 성공하는 쾌거를 거두었으며,

경제지역 시민의 식수문제 해결을 위해 안동시와 「경제지역 지방상수도 상호 용수공급협약」

을 체결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경북 지역경제활성화 시군 평가 ‘최우수’, 경북 농식품 수출정책 평가 ‘우수’ 등의 영광을 안으며 영주시의 지속 성장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산불량지 우수기관 평가 ‘최우수’ 국가암 관리사업 평가 ‘최우수’, 도시재창조 한마당 균형발전 우수사례 ‘대상’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10만 영주시민 여러분과 영주시 공직자가 함께 달려 이룬 결과이기에 더욱 뜻 깊고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향을 사랑하는 향우 여러분!

2024년 역시 녹록치 않은 현실이 우리 안팎을 에워싸고 있지만,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절호의 기회를 반드시 살려 시민이 체감하는 획기적인 변화와 도약을 이뤄 나가겠습니다.

올해 영주시는 ‘본예산 1조원’ 시대를 힘차게 열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편성한 소중한 예산이 영주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성공은 시도하기로 한 결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올해도 영주시는 도전을 멈추지 않고, 영주 발전과 1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세계로 도약하는 첨단 미래 산업도시 기반을 견고히 다져 지속가능한 자족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소비재 중심, 기술 중심, 환경 중심의 혁신 농업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색있는 문화관광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은 행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모든 시민이 품격있게 살아갈 수 있는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삶을 약속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일곱째, 시민 중심의 열린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언제나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요구에 끝까지 응답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책임감 있는 업무처리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등 민원행정을 혁신하겠습니다.

읍면동 민생탐방, 시민 의견 취취 창구와 시정 모니터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향을 사랑하는 향우 여러분!

흔히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도전과 혁신의 발자취로 이뤄낸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2024년을 시작하는 지금, 영주발전을 향한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할 때입니다.

강한 의지로 정성을 다하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금석위개(金石爲開)’의 정신으로, 올해는 굳은 의지와 물러서지 않는 용기를 갖고 영주의 빛나는 내일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영주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영주시민 모두의 앞길에 성취와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국가적 위기에 대응

권기창 안동시장 신년사

안동시가 2024년 청룡의 해, 갑진년을 맞아 새로운 미래 100년의 비전을 제시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에 대응해 끊임 없이 창의와 혁신의 자세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지역발전의 주춧돌이 될 공약사업과 여점사업의 결실을 하나하나 거둬나갈 계획이다.

먼저, ‘사통 팔달의 교통 중심 도시’조성에 속도를 낸다.

둘째, ‘깨끗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 복지 도시’ 안동을 만든다.

셋째, ‘세계인이 모여드는 문화관광 스포츠 도시’ 안동의 위상 정립한다.

네 번째로, ‘활력 넘치는 시민 중심의 경제·행정 도시 안동’을 만든다.

다섯째, ‘지속가능한 발전동력을 갖춘 농업 도시 안동’을 만든다.

끝으로, ‘백세시대,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안동’을 만든다.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가입으로 건강한 100세 시대,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조속히 건립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임신부와 출생아의 건강증진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권기창 안동시장

대상포진, 결핵 등 알려진 감염병에 대해서는 더욱 촘촘한 지원과 관리를 통해 안전망을 강화하고 모바일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역학조사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환경 변화에 의한 감염병 대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안동시는 2024년 신년화두로 백절불굴 중력이산(百折不屈 衆力移山)을 선정했다. “백번 꺾여도 굴하지 않고, 힘을 모으면 태산도 능히 옮길 수 있다”는 뜻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안동시민, 출향인과 맞손을 잡고 새로운 안동을 건설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미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더욱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시민의 힘과 공직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안동 미래 100년의 주춧돌을 놓겠다”라며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시민들의 삶에는 기분 좋은 변화를, 마음속에는 미래에 대한 설렘과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시민이 만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봉화 중흥의 새역사 창조에 최선을 다할 것”

박현국 봉화군수 신년사

“2023년은 세심히 준비한 전략을 바탕으로 쇠퇴일로지의 지역경제와 지방소멸이라는 당면한 위기에 맞서 봉화 중흥의 새역사를 창조해



박현국 봉화군수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2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위기의 봉화를 되살리길 바라는 군민의 간절한 염원 아래 민선 8기 군정을 성공적으로 출범하고, ‘군민의 권리 신장’과 ‘군민 소득 1조 원 시대’ 실현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기반을 착실히 닦아왔다”고 했다.

박 군수는 “계묘년 새해는 토기가 상징하는 것처럼 봉화군에 풍요와 번창이 가득하고 만사를 지혜롭게 해쳐 나가는 해가 되도록 ‘군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의 비전을 향해 600여 공직자와 함께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 △미래형 영농기반 구축 △임업산업 적극 육성 △글로벌(glocal) 관광자원 확충 △지방소멸 위기 극복 △더불어 사는 따뜻한 행복도시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6대 군정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미래형 영농기반 구축을 통해 농정의 혁신을 가져올 계획이다. 지금까지 생산지원에

집중했던 농업정책을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부족 등 고질적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 마련하고, 최근 스마트 농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봉화군에서도 봉화읍 해저리 일원에 10ha 규모의 봉화형 스마트팜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존 농업인들에게 임대함으로써 노동력 투입은 적고 소득은 높은 디지털 농업기술을 널리 확산시킬 예정이다.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6차산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수급과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농촌일자리 중개센터 건립 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

군 면적의 83%를 차지하고 있는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해 임산업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의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총 850ha 규모의 유실수 및 목재생산용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임산물 재배단지 조성사업과 임산물 산지 종합유통센터 조성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인프라 확충에 힘써 임업인의 안정적 경영기반 구축을 도모한다.

문수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의 연내 준공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각광받는 웰니스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백두대간 야생화 생태원 등 대규모 산림분야 국가기관 유치에도 본격적으로 나서 산림에 기반한 봉화 도약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든다.

또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항에 대응한 글로벌(glocal) 관광자원 확충에도 더욱 속도를 내 관광산업을 농림산업과 더불어 지역경제를 이끄는 양대 축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최근 베트남 국가주석 면담과 프선시와의 우호강화 협약체결로 사업추진에 훈풍을 맞고 있는 봉화 베트남 마을 조성사업은 국가사업 반영을 조속히 성사시키고 분천산타마을의 국제적 명소화를 위해 관광콘텐츠를 대폭 강화한다.

명호면 만리산 일원에 산악레포츠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봉화만의 특색을 살린 사계절 테마 국제 관광벨트를 완성하고 노루재 국도도를 활용한 루지체험장, 봉화정자문화생활관 일원에 애완동물과 함께 숙박할 수 있는 펫빌리지 조성 등 관광객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다채로운 관광자원 확충에 나선다.

아울러 적극적인 인구정책으로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예정이다.

민선 8기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최우선 군정 과제로 삼고 그간 부재했던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담부서인 인구전략과를 신설 운영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와 인구종합계획 수립 등 인구 정책 전반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마지막으로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봉화읍과 춘양면 소재지를 새단장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오랜 숙원사업인 내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여 미래형 도시플랜 완성에 박차를 가한다.

힐링이 필요한 순간 스마트하게 즐기는 **영주여행**

지금 바로 스마트폰 마켓 or 앱스토어에서 **영주여행** 을 검색해보세요!

※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여행 중에도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 수칙을 잊지 마세요!

Opinion

대구광역시일보

www.dgy.co.kr
등록번호(열간)
대구가 00016

대표 (053) 253-0000
FAX (053) 253-0041

신문 및 이
달라지면
신문 내용도
달라져야 합니다
대구광역시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발행인 김명숙
편집인 김성용
부사장 조여은
편집국장 김현석

지역번호 053

대표 257-0000
부사장 254-0400
편집국장 257-0200
경영지원국 267-5000
광고국 267-0800
사회부 253-0060
경정부 253-0061
문체부 253-0065
지방부 253-0064
편집부 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경영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칼럼

새로운 정치의 출발

장태평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여당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추대했다.

그는 비대위원장을 수락하면서 '막연한 자신감보다는 동료시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잘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더 크게 느낀다'면서 국민의 상식과 생각을 나침반 삼아 공공선을 이루는 '실천'을 하겠다고 했다. 여당의 혁신을 넘어 절망적인 우리 정치에 희망의 빛을 주는 것 같아 반갑다.

정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정치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것 같아 기쁘다.

70년 대 출생의 젊은 정치인이기 때문이 아니다.

제도와 정당을 숙주 삼아 수십 년 간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드는 운동권 특권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기록권 정치 세력의 교체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최근 이 특권 운동권에 심지어 청년들까지 세로이 무임승차하면서 구습을 이어가는 정치 풍토에 국민들은 절망감마저 느끼고 있었다.

현재와 같이 진영논리에 젖은 무책임한 패거리 정치 문화가 변해야 한다. 사익을 우선 추구하는 타락한 카르텔 정치꾼들이 사라져야 한다.

깨끗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사실 백척간두에 서 있다. 출산율 0.7의 인구 절벽만이 대한민국을 자살로 모는 것이 아니다.

경제성장률이 계속 하락하여 대다수 선진국보다 낮은 대표적인 저성장 국가가 되었다. 수수방관한다면, 이도 인구 자살이나 다름

없게 나라를 쇠멸로 몰고 갈 것이다.

다시 블록화 되어가는 국제 정세에서 지정학적 취약성도 도사리고 있고, 북한의 핵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 선택을 잘못 한다면, 안보 측면에서도 자살적 선택이 될 수 있다. 즉, 그 어느 때보다 지혜로운 국가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각 분야에서 갈등이 극대화 되고, 진영논리로 싸움이 격화되고 있다. 거의 내전상태다. 이를 해결할 정치적 리더십이 절실하다.

일부 정치꾼들에 의하여 우리나라는 오히려 정치가 실종되고, 최소한의 윤리와 원칙마저 무너지고 있다.

사법체계가 사법정의를 훼손되고, 3권 분립의 민주적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정치꾼들이 자신과 자기 진영의 작은 이익 때문에 최소한의 금도도 무너뜨리고 있다.

국가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마치 임진왜란 발발 1년 전의 조건과 같다.

임진왜란 당시 국가를 구한 사람들은 뜻밖의 사람들이었다.

전쟁이 발발하기 2년 전 조선은 일본으로 통신사를 파견하였다.

통신사는 1년 간 일본 정세를 파악하고 귀국했다. 정사 황윤길은 전쟁이 날 것이라고 보고했고, 부사 김성일은 전쟁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했다. 진영논리가 작용했다.

조정에서는 전쟁이 없을 것으로 결론 내리고, 전쟁준비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전쟁준비를 하면 민심을 어지럽힌다 하여 축성 작업을 중단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통신사 경호요원으로 파견되었던 황진이라는 하급 관원은 전쟁이 날 것을 확신하고, 귀국하면서 전쟁 때 쓰겠다고 일본

보검을 구입하였다.

귀국 후에는 활쏘기와 말타리기 등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하였다. 전쟁이 나자 그는 싸우는 전투마다 승리하여 일본군의 진로를 차단하며 전라도를 방어하였다.

그는 1591년 현감에서 전쟁 발발 후 웅진 전투와 이치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며 충청도 병마절도사가 되었고, 1593년 진주성 전투를 지휘하다 전사하였다.

황진 장군이 전사하지 않았다면, 일본군은 더 치명적인 피해를 보았을 것이라 한다.

이순신 장군도 전쟁 발발 1년 전에 전라좌도 수군절도사가 되어 전쟁준비를 철저히 하였다. 군사훈련, 병참 준비, 대표와 거북선 제조, 그리고 바다와 주변 지형의 정확한 파악 등 만전을 기했다. 그래서 23전 23승을 거둘 수 있었고, 나라를 구하였다.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의병들이 일어났다.

이들이 국가를 구했다. 모두 자기 직분에 충실했던 사람들이다.

조정의 신하들은 전쟁 후에도 반성은커녕 공격적 타투기에 바빴다.

지금의 국회의원들이 임진왜란 당시 조정의 신하 같지 말아야 한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순신 장군이나 황진 장군 같은 사람이다.

그는 기성 구태 특권정치를 청산하려는 시대정신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 용기와 헌신으로 공동체와 동료시민을 위해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한다.

승리의 과실을 취하지 않고 '선민후사' 하겠다고 한다. 진정성이 느껴진다.

모든 정치인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앞으로 한 위원장이 정교하고 박력 있게 준비할 전략과 정책에 큰 기대를 건다. 우리나라 정치혁신의 실현을 기대한다.

그러하여 압축 성장과 민주화에서 파생된 그림자를 지우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의 부강한 나라로 제도약할 수 있는 비전 있는 정치 리더십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오늘의 정치



이재명



한동훈

차기 대통령감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대통령 선출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처음으로 앞질렀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사실은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서 확인됐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4%가 한 위원장을 꼽았다. 이 대표는 22%다.

갤럽 조사에서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이후 줄곧 1:2위를 차지했다.

한 위원장이 이 대표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6월 11%를 기록했던 한 위원장은 꾸준히 상승해 약 반년 만에 13%포인트 상승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22% 이후 등락을 거듭하며 정체된 양상을 보였다.

이밖에 신당을 창당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3% 이상 연전민주당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은 2%를 각각 기록했다.

김동연 경기지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1%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41%)와 70세 이상(39%)에서 한 위원장이 우위를 보였다.

이 대표는 50대(34%)와 40대(32%)에서 선호도가 높았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33%)과 대전·세종·충청(31%), 대구·경북(30%)에서 한 위원장을, 광주·전라(39%)와 제주(25%)에서 이 대표를 각각 선호했다.

이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100%)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건강상식

30·40대 2명 중 1명 본인 당뇨병자인지도 모른다

남성은 흡연, 여성은 비만 낮은교육수준 조절저해 요인

당뇨병을 앓고 있는 30세 이상 성인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0~40대는 성별을 불문하고 자신이 환자임에도 그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치료를 또한 현재하

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발간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기반의 당뇨병 관리지표 심층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1년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당뇨병 유병률은 15.8%로 집계됐다. 그중 남성은 18.3% 여성(13.5%)보다 약 5%p(포인트) 높았다.

당뇨병 유병률은 △공복혈당 126mg/dL 이상이거나 △의사 진단을 받았거나 △혈당강화제 복용 또는 인슐

린 주사를 사용하거나 △당화혈색소 6.5% 이상인 사람의 분율을 말한다.

전수 조사를 시작한 10년 전부터 흐름을 보면 2011~2012년 12.1%→2013~2015년 12.9%→2016~2018년 13.9%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당뇨병 인지율과 치료율도 2011년 이후 증가 추세다.

당뇨병 인지율은 유병자 중 의사로부터 당뇨병 진단을 받은 분율을 말하는

데 10년 새 60.8%에서 67.2%로 6.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병자 중 현재 혈당강화제를 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를 사용하는 분율을 의미하는 치료율은 54.3%에서 63%로 9%p 증가했다. 하지만 30~40대는 성별을 불문하고 인지율과 치료율 모두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0~49세 남성의 경우 2019~2021년 인지율 51.6%, 치료율은 46.7%로 집계됐다. 여성은 인지율 48.6%, 치료율 40.9%로 나타났다. 반면 50~60대는 남녀 각각 인지율 66.8%, 67.8%였고 치료율은 각각 60.8%, 65.5%로 조사됐다.

70대 이상은 이보다 더 높았는데 남

성 인지율은 75.9%, 여성은 78.7%로 80%에 육박했고 치료율은 남성 72.8%, 여성 76.7%를 기록했다.

당뇨병에 걸렸어도 당화혈색소를 6.5% 미만으로 조절하고 있는 사람의 분율을 말하는 조절률은 2011년 이후 큰 변화 없이 2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인지율, 치료율 추이와는 다르게 성별, 연령 별로 나누어도 최근 10여년 간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증가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당뇨병 혈관 합병증의 예방을 위한 당화혈색소, 혈압, LDL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고려한 조절률은 유병자, 치료자 모두 2011년 이후 2배 증가하였으나 10% 미만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

도전하는 청년

활기찬 노후

꿈을 키우는 아이

행복한 가정

쾌적하고 행복한 도시 살고 싶은

내게 딱 맞는 인구정책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꿈나무육성

제10회 대구광역시일보배 전국아마추어골프대회

출인원 300만원 상당 백화점상품권
 ※첫 출인원 선수에 한함(천마·화랑 코스 각각 시상)

2024 GOLF

대구광역시일보



2월 26일 월요일
 경주신라컨트리클럽

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행운상 푸짐

일반부 스트로크

메달리스트 남·여 트로피 백화점 상품권(100만원 상당)
 ATPGA(아시아투어프로골프협회)
 프로자격증 수여(250만원 상당)

주최 주관 (주)대구광역시일보사
 후원 경북도, 경북교육청, 경주시
 협찬 ATPGA(아시아투어프로골프협회)

***시상내역**

- 학생부(스트로크 방식 ※남·여 통합)
 - 초등부 1·2·3 각 장학금 지급
 - 중등부 1·2·3 각 장학금 지급

- 일반부 - 신페리오
 - 남자 우승 트로피·풀세트
 - 여자 우승 트로피·풀세트
 - 남자 준우승 트로피·아이언세트
 - 여자 준우승 트로피·아이언세트
 - 남·여 3위 트로피·드라이버
 - 롱기스트 남 트로피·드라이버
 - 롱기스트 여 트로피·드라이버
 - 니어리스트 남·여 트로피·퍼터
 - 이글상, 최다 버디, 파, 보기 더블파 각 상품 지급

참가규모 88팀(학생부 포함 천마·화랑 코스)

접수기간 2023년 11월 1일~2024년 1월 30일 (입금자 우선)

2024년 2월 26일 오전 10시 30분 동시 티오프

2부 시상식 및 유명 연예인 공연

◆ 행사 장소 : 경주더케이 호텔

- 참가부문 및 자격: 전국 초·중학생 및 남·여 아마추어
- 일반부 참가비: 27만원(그린피, 카트, 저녁만찬 포함)
- 학생부 참가비: 27만원(그린피, 카트, 저녁만찬 학부모 포함)
- 참가비 입금계좌: 대구은행 508-11-147821-4
예금주: 김영숙
- 접수기간: 2024년 1월 31일까지 선착순 마감(참가신청입금 후 환불 불)
- 참가문의: 대구광역시일보 사업국 1600-5458
담당 010-4473-4473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일보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선수등록 확인 관계로 9시 30분까지 골프장 도착